



변동장세 속 주식투자 요령

연기금 증시 투자 여력 12조

정부-3개 연기금 관계자 조기투입 공감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주요 연기금 관계자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여건하에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주요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여력은 국민연금 9조원을 포함해 11조~1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연기금들의 올해 주식투자 여력과 집행계획, 입장 등을 점검했으며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투자자 결정과 집행은 결국 연기금의 몫이므로 연기금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정권위 의장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을 공무원들이 개인용 어디에 넣고 이런 식이면 연금에 돈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와 연기금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소식은 전날부터 전해졌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타 연기금 등을 동원해 주식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려 한다는 메시지로 작용해왔다.

외국인 매도 이어질까

올들어 7조원 순매도...단기적 마무리 전망도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연말 이어지면서 그 지속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매도 공세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도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올해 내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4일 지난해 대규모 외국인 매도 국면을 감안할 때 올 초부터 풀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 공세는 단기적으로 거의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코스피지수가 2,000대에서 1,600대로 떨어질 때 외국인은 16일동안 7조8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11월 지수 급락 당시에는 6조5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올 들어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2천532억원을 순매도했으므로 지난해 2차례의 외국인 매도 공세 때와 같은 규모의 매도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의 광범영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인 매도 공세가 지금과 같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가로 1조~2조원의 매도 물량이 나올지는 몰라도 단기적인 외국인 매도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작년 매출 30조

환율 하락 불구 사상 최대 실적

현대차가 환율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3년만에 영업이익률도 6%대를 회복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30조4천891억원, 영업이익 1조8천150억원, 경상이익 2조2천220억원, 당기순이익 1조6천824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11.5% 늘었고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47.0%, 17.8%, 10.2% 증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4·4분기에는 매출 8조7천362억원, 영업이익 6천365억원, 당기순이익 3천3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2%, 107.5%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0.6% 줄어든 수치다. 현대차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판매 180만대(내수 67만대, 수출 113만대)에 매출 33조6천250억원(내수 14조7천687억원, 수출 18조8천563억원), 영업이익률 6.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 제네시스·모하비 인기

美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

현대기아차의 야심작인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와 정통 SUV '모하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인터넷 사이트 포브스닷컴은 최근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2008's hottest New Vehicle) 12개 차종에 기아차의 모하비(미국명 보레고)와 현대차의 제네시스 쿠파를 선정했다. 포브스닷컴은 또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세단'(Hottest Sedans of 2008) 10개 모델에 현대차 제네시스를 포함시켰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간지 '올랜드 센티널'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출품된 차량 중에서 밝은 '2008 디트로이트 모터쇼 하이라이트 10개 모델'에 제네시스와 모하비를 함께 선정했다.

대박 환상 점고 분산·장기투자로 맞서라

개인 투자자 대부분 시장에 휘둘러 샀다 팔았다 반복

우량 기업 주가, 시간 지나면 그 내재가치로 평가 받아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개인들이 똑같이 출회하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고가는 작년부터 제기되어온 상황이고, 기업의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내재가치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는 과거 수익률에 영향을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일본 편드와 해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REITs 펀드가 인기를 끌었고, 하반기에는 중국 펀드와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가입자 수가 단기간에 집중된 이러한 펀드들의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률이 급락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평균 투자기간이 10개월이라는 것은 얼마나 투자자들이 시장에 흔들리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08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재무목표를 세우고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시장을 예측하고 좋은 종목과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정가, 정액, 분산, 장기 투자라는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시장의 변동성에 개의치 않으며, 대박의 환상을 점고 분산투자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일지 모르다.

하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석적인 투자원칙을 지켜갈 때 여러분은 '불황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국제 유가·금값 하락세 지속 원자재가 '고공행진' 멈추나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와 금값 등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속에 하락세를 지속해 주요 원자재가의 고공행진이 일단락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전날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아 석유소비가 줄어든 것이라 예상으로 하락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에 비해 2.22달러(2.5%) 내린 배럴당 86.99달러에 거래를 마쳐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장중에 배럴당 100.09달러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할 때 20일만에 13%가 떨어진 가격이다.

이달 중순 온스당 900달러를 처음 넘으며 최고가 행진을 했던 국제 금값도

하락세다. 이날 NYMEX에서 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7.20달러 떨어진 온스당 883.1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시간의 거래에서 온스당 915.9달러까지 기록하는 등 900달러를 훌쩍 넘어 1천달러를 향해 내달릴 것으로 보였던 강세행진과 비교하면 기세가 약해진 셈이다.

이날 3월 인도분 구리 가격도 전날보다 12.45센트 떨어진 파운드당 3.072달러에 거래되고 3월 인도분은 가격도 13.5센트 내린 온스당 15.97달러에 거래되는 등 원자재가는 약세를 보였다.

올해 초반 해도 끝없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던 유가나 금속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로 확산돼 원자재 수요를 줄일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자동차 매장 '핸드백쇼'

24일 서울 청담동 푸조자동차 매장에서 열린 '루이까뜨즈 2008 봄·여름 신제품 쇼케이스' 행사에 참여한 모델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최신 핸드백을 선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10조7천억원 투입

도시 저소득가구 보육료 지원 60%로 확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월 278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추진할 각 부처별, 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9개 중앙부처 사업에 8조9천억원, 지자체 자체 사업에 1조8천억원 등 총 10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7조6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40.8%)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 분야에 4조7천억원

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희화 대책 및 성장동력 확보 분야 분야에는 6조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하며, 차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장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가 자녀 양육비 지원 3% 인상

올해 농가당 자녀 양육비 지원규모가 3% 늘고 대상범위도 넓어진다. 농림부는 24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작년보다 평균 3% 인상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

별로 ▲만 0세 25만3천원→26만원(월) ▲1세 22만2천원→22만9천원 ▲2세 18만3천원→18만9천원 ▲3세 12만6천원→13만원 ▲4세 11만3천원→11만7천원 ▲5세 16만2천원→16만7천원 등으로 각각 증액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7 columns: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with details on company names, job types, qualifications, salaries, and contact info.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산사 '1월 무역적자 20억달러 예상'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대규모의 무역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4일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과도하게 올라 1월에는 20억달러선

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도입단가가 배럴당 86달러에 달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4년9개월만에 8억6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바 있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연합뉴스